

# SK이노베이션 E&S와 PPA 계약 체결

전북은행·광주은행, RE100 이행에 동참... ESG경영 실천 앞장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SK이노베이션 E&S(시장 추형욱)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이하 PPA)'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는 저탄소 LNG,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솔루션 등 4대 핵심사업을 주축으로 그린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현재 약 4.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가 필요한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정 가격으로 에너지를 조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SK이노베이션

E&S와의 PPA 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국내 은행권 최초 PPA 계약을 통해 RE100 이행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며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E&S 추형욱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북은행의 탄소 중립 실천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ESG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기업으로 양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업고객 ESG Engagement', '솔임직원 대상 ESG 교육', '환경그립공모전', '컵캐리어 Recycle' 에너지의 날 절전데이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ESG사업과 캠페인을 펼쳐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만호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창립 제5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전북은행, 창립 제55주년 기념식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창립 제5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간 전북은행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 도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급변하는 시장변화 속에서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각오로 심기일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은행장은 "박종한 사령감으로 투명성과 윤리성을 기반으

로 한 신뢰받는 금융기관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며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은행장부터 일선 창구 직원까지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지역과 상생하는 국내 최고의 강소은행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1969년 창립 이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오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대한건설 전북도회, 전북도 감사위원회와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단(회장 소재철)은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진철)와 협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적정 공기 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 안전 제고와 부실시공 차단을 위한 설계도서 철저 검토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한 건설기술 인력 탄력운용을 통한 부담해소, 시설물업종 폐지에 따른 유지보수공사의 적정발주 등 지역건설업계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전북자치도 기술감사팀의 주요 감사주인 분야와 안전·보전 관리 체계 구축 등 이행 협조사항과 감사방향 및 원가심사제도 등의 설명이 있었다.

소재철 회장은 "공공시설물은 예산의 절감 못지않게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고려요소를 적극 감안해 적정공사비 산출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과 공기산정 기준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진철 사무국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환경에 공감함을 표시하며 "건설업계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수도권 주부들에게 전북의 멋과 맛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수원 메가쇼 시즌2에서 공동 실적 3억9000만원 성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과 지원사업과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수원 메가쇼 시즌2에서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수원 메가쇼는 250개사 400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이자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플레이스로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전통·수산식품 기업들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북공동관을 기획하여 참가했다. 프리미엄 타워부스 형식으로 색다른 테마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즐겨요/바다의 보물, '전북간부상회'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전북도의 '멋'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식품군과 전북도의 '맛'으로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도내 전통식품 기업 14개사, 수산식품 기업 10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한 바이오진흥원은 곰탕, 누룽지 스낵, 침출차, 전복죽, 김부각, 계장 등 다양한 전통·수산식품군을 선보이며, 현장 계약 및 판매실적 약 3억 9천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계약 및 수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완주의 그린푸드(곰탕)는 주부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현장 매출 약 1천2백만원의 성과를 창출했고, 정읍의 두손푸드(전복죽)는 파우치에

담겨있는 마시는 죽이라는 색다른 점에 반한 바이어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미국, 일본 등 여러 바이어들에게서 샘플 요청이 쇄도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수원 메가쇼 시즌2 전북공동관에 참가하여 국내 판로개척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까지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바이오진흥원에 감사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사 제품의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관람객들의 반응을 직접 보며 마케팅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행사는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한 전통·수산식품을 수도권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매 및 국내외 판촉 활동 지원 등으로 도내 식품기업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 탄소산업진흥원,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나눔 앞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은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계층의 동절기 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를 맞이해 전북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김장김치 700kg을 담그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앞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전기인공사 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 김장용 절임배추와 양념 등에 대한 구입 비용 총 300만원을 후원했으며, 이날 만든 김치를 새터민 50가구에 각각 전달했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도내 취약계층의 한파대비 및 탄소기업의 물품구매를 통한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탄소소재를 활용해 발열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국산 탄소발열조끼와 탄소



섬유매트 17개를 기증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민 원장직무대행은 "우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김장김치와 겨울나기 용품이 새터민 가구에 자계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경진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외국인 채용 박람회

12개 기업, 150여명 외국인 구직자 참여·특화형 비자 사업 탄력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하반기 외국인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 인재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내 12개 기업과 150여명의 외국인 인재들이 참여하여 1:1 현장면접을 제공하고,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참여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인재에게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을 위한 추천서가 발급될 예정이고, 해당 비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할 외국인 인재에게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F-2R비자는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 거주 비자로 요건 충족시 계속 체류



가능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을 조건 비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3명의 외국인을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추천했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기업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 기여 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